여성연대 한 판 일정

-일정: 8월 21~23일(금,토,일) 2박 3일

-장소: 동국대

21일 (금)	22일(토)	23일(일)	
	8:30~ 9:30 기상, 아침식사	아침식사 8:30~ 9:30	
	여성운동 대토론회 1차 10:00~1:00	워크샵	작은 토론회
	점심식사 1:00~2:00	점심식사	
1시 모이기 친해지기 마당 「우리의 다양성을 우리의 무기로!」	낮 문화판 2:00~6:00 :자신이 경험한 통쾌한일 콘테스트, 철인경기, 그림공동작업	총화마당 (한판 정리) 2:00~5:00 「NO SAD ! YES AND !」	
저녁식사 6:00~7:00	저녁식사 6:00~7:00		
성폭력학칙 전체 토론회 7:00~10:50	여성운동 대토론회 2차 7:00 ~9:30		
취침 11:00~	밤샘 문화판 10:00~ :본잡하기, 춤판, 영화판..		

여성연대 한 판 참가 안내

♥ 참가신청

여성연대 한 판 에 참여하고 싶은 단위나 개인은 여성연대 한 판 기획단 내 참가단 관리팀에 연락

참가단 관리팀 : 나우) absinthe

전화) 360-3548 (이화 여성위원회)

참가신청 후 신한은행 계좌 356-02-186308 (최현진)로 참가비를 입금한다.

참가비는 참가 전에 입금이 완료되어야 한다.

이후에 참가단 관리팀에서 행사에 관련한 자세한 안내가 계속 나갈 것이다.

• 미리 입금이 불가피할 경우 행사 당일날 동국대로 직접 와서 참가비를 지불하고 참가단으로 등록 가능하다.

-여성연대 한 판 참가비 : 20,000원

I. 각 행사판 기획, 준비상황 보고

A. 성폭력학칙 전체 토론회팀 기획안

0. 토론회의 위상과 목적

지난 5월, 학내성폭력근절과 여성권확보를 위한 여성연대회의는 성폭력 관련 학칙 제정을 위한 1차 공청회를 열었다. 작년부터 연대회의에서 고민되어진 성폭력 관련 학칙과 그 필요성, 앞으로의 운동방향 등의 과제를 함께 풀어 보기 위함으로써, 구체적으로는 그간 큰 운동성을 발휘할 만큼까지 학내 여성운동단위들에 그 이해조차 파급되지 못했던 연대회의의 학칙사업을 알려내고 그 안에서 중간평가해 보는 기회였다. 현재 연대회의에 참여하는 단위 사람들 이외에도 학내성폭력과 그 근절, 그리고 학내여성운동으로서의 본 학칙제정운동에 관심있는 여러 포지션의 사람들이 처음으로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모였고 허용된 4시간가량 관련한 정보들이 공유되었지만 1차 공청회로서의 당면과제에 충실한 만큼, 있는 그대로의 수위에의 이해 정도에 그쳤다는 등의 아쉬움이 있었다.

따라서 이번 여성연대 한.판.의 첫날에 자리하는 토론회는, 연대회의와 각 학교에서 보다 심화되고 구체화된 그 이후의 고민까지를 총화해 내고 더욱 발전시키는 자리로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공청회와 같은 위상은 갖지 않도록, 연대회의와 각 학교 학칙사업의 주체로서 토론회에 모인 사람들의 논의가 충분히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편으로 한다. 7월에 있은 연대회의의 학칙관련 세미나 결과물과 각 학교 운동상황의 발제에 이은 간단한 질의응답 후 토론이 진행될 것이고, 그 논의는 나아가 가을학기에 여러 학교에서 동시에 있을 성폭력근절주간(가)의 기획을 함께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 공부방 (21일 오후 1:00 - 3:00)

-토론회에서의 이해와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발제문(연대회의 자료집)을 읽고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공부방'은 첫날 '친해지기 마당' 중 비교적 여유있는 앞부분에 자리하며, 모여앉을 수 있는 적당히 독립된 장소를 지정하고 준 발제자인 연대회의 구성원들이 상주하여 모두와의 간단한 소규모 세미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1) 경로

: 장소에 도착 체크인 후 아울아리의 안내를 받아 공부방으로 간다. 아울아리는 친해지기 마당 프로그램에 대한 안내와 더불어 공부방을 알리고 참여하도록 권한다 -> 연대회의 자료집을 소화한다

2) 방식

: 모이는 사람의 수를 보아 유연하게 진행한다. 적을 경우 전체를 대상으로 그때그때 나오는 질문들을 받아 답하고, 많을 경우 질문지를 받아 오후 2:40 경 답할 수도 있다. 자리를 지키는 연대회의 사람들이 상황을 보아 결정하도록 한다.

*장소섭외: 책상/걸상이 30조 이상 놓인 강의실 혹은 그에 준하는 공간. 친해지기 마당 진행소와 멀지 않은 곳, 되도록 시원한 곳, 분위기가 부산스럽지 않은 곳

*역분: 아울아리와 총괄팀, 문화판 준비팀 등 친해지기 마당에 직접적으로 동원되는 인원들 외의 모든 가능한 연대회의 사람들이 결합, 서기 1명

*준비물: ~~공부방 관련 2장, 선전 자보 2장,~~ 시원한 마실거리와 필요한 기구들 (먹는샘물이나 주스 등, 다회용 컵), 안내용 발바닥 10장 가량

2. 「큰 토론판」 (21일 오후 7:00 - 10:50)

-여성연대 한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을 성폭력학칙 전체토론회의 대상으로 하되, 본 판은 본래의 목적에 따라 실무자 중심의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1) 토론회 개회, 연대회의 소개

-전체사회자가 연대회의 자료집을 이용하여 재량껏 이야기한다.

*역분: 전체사회자(장닭)

2) 발제 (60분, 7:00 - 8:00)

-발제문(연대회의 자료집)에 실린 순서대로 성폭력의 개념, 학칙의 원칙과 필요성, 학칙의 내용(1차 학칙안, 사법연수생 검토 이후의 수 정안), 학칙운동의 방향성이 그 내용이다. 모든 발제텀의 내용이 토론시에는 종합되므로 발제를 전부 마친 후 토론이 있게 된다.

발 제 내 용	발 제 자	발제시간
성폭력의 개념	X	20분
학칙의 원칙, 필요성	달팽이	10분
학칙의 내용	쌀	15분
학칙 운동의 방향성	난이, 상날	15분

-학칙 제정 운동의 방향성 팀: 현재 각 학교에서의 학칙제정운동상황과 그 결과가 나타나 자료로 이용될 만한 경우의 발제가 연대회의 자료집의 발제문들을 근거로 한 발제 외에 덧붙는다. => 학교 주도적인 성균관대(상날), 학교가 이용하려는 모습이 보이는 국민대(에드), 상담소와 위원회가 구성된 시립대(리아), 학칙 제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외대(인디), 여학생부에서 관심을 보이는 서울대(달팽이), 이미 제정한 동아대(직접 접촉 시도), 연세대의 상담소(장닭) 등의 관련 글이 참조된다.

*장소섭외: 50명에서 100명까지 들어가는 강의실과 같은 공간

*역분: 전체사회자, 발제자들(엑스, 달팽이, 쌀, 난이, 상날)

3) 휴식 (10분, 8:00 - 8:10)

-전체사회자:

1. 작은토론판 분리를 설명하고 희망자를 받는다. 지극히 소수인 경우 작은토론판 폐기를 결정한다.

2 토론 진행시 이야기가 흩어지거나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논의할 사항을 참가자들로부터 서면으로 받는다. 휴식시간에는 모두가 단순질문지와 발의지를 작성하여 진행보조자들에게 구분하여 수합시키고, 전체사회자와 함께 발제텀별로 분류하여 발제자들에게 전달한다.

-작은토론판 책임주재자; 작은토론판 희망자들과 작은토론판 공간으로 이동한다. 관련 기획은 참조한다.

*역분: 전체사회자, 진행보조자 3명 정도, 발제자들, 작은토론판 책임주재자(달팽이, 엑스)
*준비물: 단순질문지, 발의지

4) 단순질의응답 (20분, 8:10 - 8:30)

-공부방 등에서 모두가 발제문을 소화했다는 전제로, 발제시 빠진 것 등 공유되어야만 할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단순질의응답시간을 갖는다. 되도록 최소한의 것들을 질의응답으로 나누어 소요시간을 줄인다.

*역분: 전체사회자, 발제자들
*준비물: 노트북 1대

5) 토론 (90분, 8:30 - 10:00, 최대 12:00까지 ; 토론 시간이 지난 후에도 논의할 것이 있으면 총화 후에)

-원탁 토론의 형식이므로 토론자들을 40명 정도로 예상할 때, 진행의 효율성을 위해서 2개의 팀으로 나눌 수 있는데 상황을 보아 전체사회자가 결정한다. 전체사회자가 발의를 정리하여 발표한 후, 그냥 진행할 경우 전체사회자가, 나뉠 경우 각 팀별사회자들(장닭, 상날)이 토론 과정을 조절하면서 진행한다. 각 토론팀은 공통된 문제제기로 토론을 진행하고, 사회자는 순서를 조정하고 시간을 체크하여 원활한 토론이 진행되도록 돕는다. 토론의 마감은 팀이 있을 경우 팀에서, 나누어지지 않았을 경우 토론판 전체적으로 하며, 전체총화 후에도 팀별 논의가 계속될 수 있으나 전체총화 전 토론자가 개인적으로 먼저 토론장을 빠져나가는 일은 되도록 없도록 주의시킨다.

-두 팀으로 나뉠 경우, 각 팀에는 7월의 세미나에 전부 참여한 사람이 골고루 나누어져 배정되어야 한다. 장닭과 풋쩌가 한 팀, 난이와 쌀이 한 팀이 되고 다른 연대회의 사람들은 적절히 반으로 나누어져 배속한다.

*역분: 전체사회자, 팀별사회자(장닭, 상날), 팀 1,2에 들어가는 연대회의 사람들, 서기 2명
*준비물: 노트북2대

6) 총화 (60분, 10:00 - 10:50)

-두 팀으로 나뉜 경우에는 각 팀의 사회자가 팀 총화를 한 후, 토론을 마무리하는 전체적인 총화는 전체 사회자가 한다.

-토론의 총화를 한 후에 9월 성폭력 주간에 대한 언급이 있어야 한다. 기조잡기서부터 사업기획안 공유(예를 들어 학교별 공청회, 신촌이나 관악 앞에서의 공동 집회, 기념물(뺏지, T 등)의 공동 제작과 판매, 학생회와 노조 등과의 접촉 등), 실무자들끼리의 다음 약속 잡기까지 담보될 수 있으면 한다.

-전북지역 연대회의를 비롯하여 연대할 수 있고 관심갖는 분야가 있는 단위연대체거나 단위, 개인들과 학칙사업이나 연대회의와의 기회를 모색한다.

*역분: 전체사회자, 서기 1명

*준비물: 노트북 1대

3. 「작은 토론판」 (21일 오후 7:00 - 10:50)

-발제 시간을 큰 토론회와 같이 한 후, 따로 모여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적인 질의, 응답과 관련 논의를 중심으로, 충분한 이해를 얻은 다음에 큰 토론판과는 독립된 다른 토론을 다른 공간에서 진행한다. 사례나 경험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성폭력의 개념을 정립하고 학칙의 필요성과 원칙까지 다루는 것이 편리하겠으나 나름의 논의로 토론자들이 토론에 참여하고 '얻어갈' 수 있는 자리가 된다.

1) 경로

: 발제 -> 간단한 질의응답 -> 그 뒤 큰 토론판과는 분리되는 공간을 책임주제자들이 꾸리기

*장소섭외: 적정인원 30명 기준으로 많게는 50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 강의실에 준하는 공간, 독립되고 조용한 곳
*역분: 책임 주제자(달팽이, 엑스)
*준비물: 간판 1장, 대코, 안내용 발바닥 10장 가량

B. 여성운동 대토론회 준비팀 기획안

여성연대한판 둘째날(1998년 8월 22일), 대학내 여성운동에 대한 2차례의 토론회가 개최됩니다.

들어가며....

"우리가 왜, 현 시점에서 이 토론회를 개최하려는가?"

경제위기가 우리 앞에 닥치면서 우리는 전사회적인 보수화의 경향을 볼 수 있다. 경제위기는 이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파고 들고 있으며 특히 그 동안 여성운동이 거뒀던 많은 성과들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만약 운동이 한 사회를 변혁하기 위한 것이라면 대사회적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여성운동가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며 그에 따라 우리는 어떠한 전략들을 세워야 하는가? 그러나 어느 운동이든 끊임없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 변화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더불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운동에 대한 냉철한 평가와 반성이 수반되어야 한다.

90년대 중반에 들어서 여학생운동은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전체'운동에 단순히 복무하는 운동이 아니라, 페미니즘의 이론을 가지고 독자성을 추구하는 것이 현재 여성운동의 철칙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추구하기 위한 실천들을 해왔다. 그리고 그 어느 세력이 무시할 수 없을 만큼 성장했다. 지난 몇 년 간 우리는 앞을 향해서 달려왔다. 지금은 우리가 여태까지 달려온 길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현 좌표를 점검할 때이다. 자, 잠시 숨을 돌리고 생각해보자. 우리가 주장하는 '독자성'이 무엇이며, 실천적으로 올바른 길 - 물론 이것은 선험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달리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 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혹시 우리는 단일한 여성운동을 형성해야 한다는 목표 아래에, 다른 운동 세력으로부터 받던 비난 - 비판이 아닌!! - 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우리가 그토록 부르짖는 '차이'와 '연대'를 무비판적으로 당연시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어쩌면 우리는 예전 여성운동가들이 꿈꾸지도 못했던 자매애를 온몸으로 느끼는 동안 서로에 대한 비판력을 억제했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반성과 다른 동지들에 대한 생산적인 비판이야 말로 여태까지 우리가 가졌던 추동력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는 여성운동이 정지될 수밖에 없다. 소규모적으로 우리를 고민하게 만들었던 문제들 - 이슈와의 문제, 조직적 체계의 문제, 대내/외적 연대의 문제들을 언어적인 악순환에서 끄집어내 한번 치열하게 논쟁해보고 앞으로 여성운동이 가야할 길에 대한 함께 고민해보는 자리가 이번 여성운동 대토론회 자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토론회 1 : 현실전망과 이후의 방향성 (내용성에 대한 문제)

☞ 여성운동이 어떠한 것들을 주되게 담론화하였으며, 다른 운동과 어떠한 관계를 맺는가? 우리의 현 위치는 어디인가?

① 정세분석 - '대학'이라는 공간과 학내 여성운동의 존재 조건

- 대학내 여성운동의 존재 조건에 조명해본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의 위치는 많이 변하고 있다. 이 속에서 여대생들은 사회적으로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가? 가부장적 권력이 대학에서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은 기정 사실이다. 그럼에도 대학생이기 때문에 특수한 사회계층적 위치가 부여되기도 한다. 이것은 여성운동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 요건으로 작용하는가?

②대학내 여성운동의 정치적 의제와 그간 운동의 성과들

- 90년대 중반부터 대학내 여성운동판은 급격히 바뀌었다. 현재 들꽃/돌꽃모임, 여성연대회의, 살맛나는 세상, 여대생먹고살기대책위가 결성/활동 중이며, 이전에 있었던 전여대협도 지속되고 있다. 현재 여성운동이 조직화되는 방식은 주로 어

떠한 주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었다. 현재 주되게 논의되고 있는 것이 성폭력과 여성노동이다. 이것들은 어떠한 맥락에서 운동의 주요 의제가 되었는가? 왜 현 시기 우리에게 중요하며 학내 여성운동 내에서 어떠한 위상을 갖고 있는가? 빈민여성문제나 정신대 또는 기지촌의 문제는 소규모적으로 진행되면서 학내여성운동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지 못하는 것은 어디에 기인하는가?

③대학내 여성운동의 현 주소

ㄱ)대학외 여성운동과의 관계 ㄴ) 다른 운동과의 관계

대학내 여성운동(여성 사회단체와의 관계)으로서 또는 대학내 *여성운동*(대학내 다른 운동과의 관계)으로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조명해보자. 연대를 해야한다는 데에는 모두 동의한다. 그럼에도 그 구체적인 상과 실천적 방향에는 의견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어쩌면 '연대'가 지나치게 추상화된 논리로만 논의되기 때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현재의 사회적인 변화들은 무엇이며 이에 따른 '전체' 운동판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변하는 운동판은 즉 우리 운동과 다른 운동 사이의 관계도 변한다는 의미이다.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④이후 여성운동의 방향성 - 연대의 원칙과 조건, 그리고 실천의 전략들....

진행방식 : 발제자 4명 정도가 위의 질문들에 모두 답변할 수 있는 발제문을 쓴다. 사전에 각자의 내용은 충분히 공유가 되어 서로의 의견차이가 들어날 수 있도록 발제자가 선정되어야 하며 또한 발제문도 논쟁을 일으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발제제안 : 고려대 여성위원회, 성균관대 총여학생회, 먹고살기대책위, 살맛나는 세상

토론회2 : 여성운동의 방법론 및 조직체계에 대하여

=>여성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조직체계에 대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했을 것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총여학생회의 유의미성/무의미성에 대한 논쟁으로 체계에 대한 논의가 더욱 붉어졌으며 기존 운동권의 중앙집권제를 벗어난 여성주의적 운동 방식에 대한 추구로 이어진다. 그러나 실천적으로 많은 시행착오와 오류와 한계점들이 들어나기 시작하고 있으며 특히 인재재생산의 문제가 많은 운동가들을 괴롭히고 있다. 현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우리의 현 주소는?

①여성주의적 조직론은 무엇인가?

몇 해 전부터 학생회의 중앙집권주의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으며 또한 총여학생회도 그 화살표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학생회의 간접민주주의를 넘어선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하게 되었으며, 총여학생회의 대안적 형태로서 위원회 내지는 자치단체들의 연합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 논쟁은 여전히 유효한가?

②여성주의적 조직의 내부체계에 대한 문제

여성주의적 조직 형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면서 동시에 내부체계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었다. 운영(의사결정) 부위와 집행 부위가 확고히 분리된 관료주의적 체계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어 여러 가지 형태들이 실험되고 있다. 이것은 기존 체계에서 완전히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여성주의적 체계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 체계에서 축적된 것은 무엇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야 하는가? 혹시 '기존 체계에 반대하는 것 = 무체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③연대체 또는 '중앙'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 (여기에서 '중앙'조직이란 여러 가지를 의미할 수 있다)

여학생운동의 최초의 전국 조직이라 할 수 있는 전여대협을 비롯해 현재에는 여성연대회의, 살맛, 먹살, 들꽃/돌꽃 등의 연대모임들이 많다. 연대체로서 이들이 여태까지 수행한 역할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또한 '중앙' 조직으로서 연대모임

이 역할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자. 다른 학생정치조직들은 의장과 중앙집행부를 갖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권위가 갖는 강제성과 자발성이 빠질 수 있는 무책임 사이의 줄다리기를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

④대표자회의의 의미성

잠시 추진되다가 해소가 된 대표자회의 준비위원회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고 평가해보자. 그 의미성들을 아직도 유효한가? 대표자회의의 역할과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면서 여성주의적 조직의 미래 전망에 대해 논의해보면서 토론회를 마쳤으면 한다.

진행방식 : ①②③은 각 학교 상황마다 다르고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각 부분 발제에 가장 적당한 학교/개인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 한 학교가 한 소주제에 초점을 맞추되 다른 부분(다른 학교/개인의 발제)에 대해서는 논평을 해준다. ④에 대해서는 모든 발제자들이 답변한다.

발제제안 : 연세대 총여학생회, 관악여성연대모임, 여성연대회의, 이화여대 여성위원회

준비 사항 :

○발제자와 대토론회팀은 앞으로 약 3차 간의 회의를 거치게 되며, 첫 모임은 8월 13일 연세대 총여학생회실에서 있었으며, 두 번째 회의는 8월 16일 10시 동국대 총여실에서 있습니다. 이 날까지는 발제문 초안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장소 및 물품 : 장소는 패널 토론이 가능한 강의실이나 소강당 정도. 필요물품은 마이크 3개 정도, 책상 및 의자 등. 외부/내부 선전이 필요함.

○자료집으로 들어가야 하는 글 : 대학내 여성운동사, 토론회준비팀의 기획글, 발제문 8개

Γ. 첫날 친해지기 마당, 마지막 총화마당 준비팀 기획안

★ 친해지기 마당 「우리의 다양성을 우리의 무기로!」

: 21일 1시 ~ 6시

1. 조 정하기, 도착 확인 :

참가단중에는 지방에서부터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도착 시간이 확실하지 않으므로 프로그램 진행 시간을 유동적으로 여유있게 잡았습니다.

1시 ~ 3시 : 도착해서 우선 아울아리들이 맞는 테이블로 갑니다.
거기에서 자료집과 명찰을 받고/ 명단 체크를 하고/
"가상 인물 완성하기" 8개(조별로 하나) 표 중 마음에 드는 칸을 채우고/
그리고는 3시까지 남는 시간을 활용해서 각 모임별 게시판이나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아울아리는 게시판이나 부스자리 확보해 놓고 안내해야함.)

?? 가상인물 완성하기란 : 사람들이 하나의 가상 인물에게 이름, 나이, 특기, 성격, 직업, 취미, 캠프에 오게된 동기, 올해의 소원, 여성 운동을 하게된 계기, 생긴모습 등을 하나씩 부여하여 자기 조의 마스코트가 될 인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8개의 사람중 한 인물을 선택하여 캐릭터 사항을 채울 수 있으며,
이때 다른 사람이 써놓은 것을 참고로하여 다른 사람과는 다르고, 스스로는 일관성있는 인물을 창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가, 창녀, 대학생, 가정주부, 회사 비서, 수녀, 모델, 공장 노동자 등 다양한 위치에 서있는 여성상을 상정해보고, 그 다양성이 우리의 무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때 완성한 표는 각조의 방문 앞에 아니면 가까이에 그 조를 나타내는 증표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때 아울아리들은 참가인에게 잘 설명해 주고, 각 인물에 따라 다른 색깔의 스티커를 명찰에 부착하여 나중에 조를 알 수 있게 합니다.)

2. 캠프 선언식 (3시~4시20분)

대강당이나 넓은 공터에서 모두 모여 사회자의 진행으로
- 캠프 개막 선언을 하고(선언문은 자료집의 권두언으로?)
-- 아울아리들의 준비된 노래와 율동이 곁들어지면 더욱 좋을 듯
--- 각모임의 인상깊은 3분 소개(이번 캠프에 바라는 점,
여성 운동판에 바라는 점, 자기 팀의 특색, 올해 계획 등을 다양한 형식으로)

---- 조발표, 숙소 배치, 일정 소개

3. 조별 모임 (4시 40~ 5시 40분)

- 각자의 소개, 인사 (알아서 잘하겠지)
-- 각조를 아우르고 보살필 조장(아우람)을 뽑고
--- 각자의 생애에서 가장 통쾌했던 경험들을 얘기하는거지...돌아가면서.
열심히 해야해, 그중에서 베스트를 뽑아 조별 통쾌한 이야기 콘테스트에 나가야 하니까
(예를 들면, 권위주의적인 아버지를 어떻게 길들였는지, 운동판의 가부장적 동지들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지하철의 성추행범을 어떻게 혼내주었는지, 담배피는데 시비거는 놈들에게 어떻게 일갈을 날렸는지...실제 경험들을 들어보는 자리)

* 준비물 : 게시판 3개, 대자보 용지, 매직, 명찰 , 스티커,
* 유의 사항 : 모임별 3분 소개 꺼리 마련해오라고 미리 알려 줄 것

★ 총화 「 NO END! YES AND ! 」

: 23일 2시~

-사회자 진행으로 각자의 소감 이야기 하기
(사회자의 준비된 질문과 답변자의 준비된 대답이 오가는 토크쇼의 형태)

WHO? 조별 1명, 학칙 토론 사회자, 학칙 문화제 준비팀 중 1~2인(문화제 홍보 및 각오 밝히기)
여성 운동 토론팀에서 1~2명, 워크샵 팀, 캠프 준비팀...

--광고할 것 하고
---마무리 멘트와 박수...새로운 시작을 기약하며

* 준비물 : 무대, 마이크
* 유의 사항 : 아울아리들이 아침부터 캠프 소감을 적을 페이퍼를 돌렸으면 합니다.

Δ. 문화판 준비팀 기획안 (가안)

I. 22일 낮문화판

1. 자신이 경험한 통쾌한 일 콘테스트

첫날 친해지기 판에서 한 통쾌한 일 이야기하기의 연속. 각 조별로 한 명씩 가장 통쾌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경연을 벌이고 서로 앞으로 살아가면서 통쾌한 경험을 더욱 더 많이 만들어 갈 것을 다짐(?)한다. 가장 멋진 이야기를 해준 사람에게 별도의 상품이 수여됨. 상품은 비밀.

시간 : 오후2시-2시 반
장소 : 모두가 들어갈 수 있을만한 큰 강의실.
필요한 것들 : 마이크 1-2개. 엠프

2. 철인경기

각 조별로 5종목의 경기를 하며 한 종목 당 10분-15분 정도가 소요된다. 조별 대항이며 가장 많이 이긴 조에게 역시 상품이 주어질 예정. 역시 상품은 비밀이다.

① 줄넘기 (혼혀들 꼬마야 꼬마야라고들 한다.)
방식은 알다시피 노래를 부르면서 각 조원들이 발을 맞추어서 줄을 뛰어넘는 것이다. 10분 동안 어느 팀이 더 많이 넘었는가가 승패의 기준이다. 팀웍이 핵심인 게임이다.

② 지하철 다리벌리기
지하철에서 다리를 좍 벌리고 앉은 아저씨들을 보는 것은 흔한 경험일 터. 그런 아저씨들과 싸우는 연습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듯.
긴 의자(둘 이상 앉을 수 있는 의자)에 앉아 기준선을 그어놓고 넘어가면 이기는 게임. 사실상 다리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다. 이것만으로 관가름이 나지 않을 경우 눈싸움을 해서 관가름 한다.

③ 3:3농구
말 그대로 농구. 각조에서 3명씩 팀을 짜서 농구하기. 10분을 해봤자 0:0 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에 자유투를 한다. 그래도 안되면? 할 수 없다. 남자들이 하는 흔히 스포츠라는 것에 겁내지 않기 위한 게임이다.

③-1 물풍선 놀이
농구에서 지는 팀이 표적이 되어 서 있고 이기는 팀이 물풍선을 던져서 호탕하게 노는 거다.

④물총싸움

pt병에 물을 채워 만든 물총을 사용한다. 각 조별로 한명씩 색소가 들어있는 병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맞은 색소량에 따라 승패를 가른다.

⑤ 개백다귀

개백다귀의 그림 안에 한 조가 들어가서 한 귀퉁이에서 다른 귀퉁이로 이동한 후 다시 처음의 귀퉁이로 오는 것이 게임의 목표이다. 이 와중에 다른 조가 그림 밖에서 안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모두 끌어내면 밖의 팀이 이기는 게임이다. 글로는 잘 안풀리는군. 말로 설명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간 : 오후 2시 반-3시 반
장소 : 대운동장
필요한 것: 긴 줄. 긴의자. 농구공. pt병 10개. 진행요원 7명

3. 쉬는 시간. ~~3시 반-5시~~ 4시반-6시

이 시간에 한쪽에서는 먹고살기 대책위원회의 프로그램이 진행됨. 참여할 사람은 하고 말 사람은 쉬는 시간이다. 이후의 토론회를 위하여.

4. 그림공동작업 개시반-4시반

3조 정도를 한 팀으로 하고 큰 천에다 공동으로 그림을 그린다. 주제는 각 팀마다 여성연대 한판, 성폭력 학칙제정, 여성주의.

시간 : 5시-6시
장소 : 마당. 우천시 강의실.
필요한 것 : 큰 천. 물감. ~~붓~~ 물. 물통. 진행요원 3명

Ⅱ. 밤문화제

시간 : 대토론회 끝나고 곧장- 밤새
장소 : 모두가 들어갈 수 있는 큰 강의실

1. 분장하기.

모두가 분장을 하되 각 조별로 가장 훌륭하게 분장을 한 사람을 한명씩 선출한다. 그 후 전체 모인 판에서 콘테스트를 거쳐 한명을 선정한다. 선물은 3천원 상당의 카레오이 시리즈 전집.

분장의 주제
- 가장 중성적으로
- 남자들이 제일 싫어할 것 같은 모습으로
- 여자들이 제일 좋아할 것 같은 모습으로
- 그의 환경, 통일, 등 맘대로 주제를 정해서.
- 그냥 하고싶은 대로.

장소 : 분장은 숙소, 콘테스트는 강의실.
필요한 것: pc천 50만, 연대의 손수건(the other)

2. 춤판.

신나는 노래와 함께 춤추기.
필요한 것: 좋은 음악, 카세트, 조명(백열등10개), 가능하면 사이키, 생각나면 야광별, 엠프

3. 영화판.

좋은 영화를 배경으로 놓고 그 영화의 o.s.t를 깐다. 영화-보이즈 온 더 사이드, 파니핑크, 연어알, 바그다드까페, 그랑 부르
중간 중간 빠른 음악을 넣어서 일종의 쌀까페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필요한 것 : 엠프, 액정, 스크린, 카세트

4. 전체 예산 : 20만원예상

밸소리
예산에 대한 깜이 없는 관계로 정확히 산출하지 못했습니다. 총무님이 알아서 계산해 주셨으면 합니다. 목요일에 문화판 준비팀이 모여서 준비물을 사러 가기로 했으니 그 전에 돈을 받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E. 워크샵 준비팀 기획안

0. 목표

대학에서 여성운동을 함에 있어 힘든 부분중 하나는 활동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찾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터지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사업을 하는데에도 버거운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가들은 쉽게 지치기 일쑤이다. 활동을 하면서 항상 아쉬워 하게 되는 노하우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결 하고자 함이 이 워크샵의 목표이다. 따라서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보다 실질적이고 현실적일 필요가 있다.

1. 워크샵 기획안

하나. 자아정체성 Program(by 호그리)

1)자아 정체성 프로그램

Saftey Zone - 둥근원을 Safety Zone으로 설정하고 자신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표시하며 Training에 들어간다.

정체성 놀이-둥글게 원을 그리고 앉아서 자신들이 평소에 알리고 싶은 것들을 말한 뒤 박수를 받는다.

예를 들어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는 사람들을 말하면 성추행을 당한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고 박수를 쳐준다.

이 프로그램은 평소에 자신들의 아픈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이야기 하고, 그것을 박수를 통해서 해소한다. 서로간의 차이와 다양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글쓰기 마라톤-자신이 평소에 가장 크게 느꼈던 분노에 대해서 5분 정도의 시간을 주고, 글을 쓰고 그중에 가장 분노스러운 글을 골라서 당사자가 나오게 한 뒤 진행자중에 한명에게 분노의 상황을 표현하게 한후 분노의 상황을 해소하게 한다. 이것은 표현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야.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알면 상황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라구.

2) 일하면서의 어려움 나누기

페미니스트로 커밍아웃한 다음에 여자친구들이건, 남자친구들이건 만나면 종종 불편해지지 않아? 여자친구들은 너 그렇게 사는 건 좋지만 너무 불편하고 귀찮잖아라고 얘기하고, 남자친구들은 네가 하는 말을 무시하거나 너를 괴하고. 너도 역시 살면서 여성으로 힘들고 짜증나는게 있는데 친구들은 너한테 무작정 기대려고만 하고 말야. 이럴 때 친구들에게 어떻게 말할지에 대해 얘기해보고 싶어.

같이 활동하는 애가 애인을 만나러 간다고 너와 함께 하는 일을 소홀히 할 때라든지. 평소에 자신이 여성운동을 하면서 겪는 갈등과 어려움에 대해 함께 나누고 해결점들을 찾아보고 말야.

3)마무리

자원나누기-자신들이 잘하는 것들을 말하고 그러한 자원들을 함께 공유하도록 한다.

칭찬하기-남자애들이 우리의 몸을 보고 이러쿵 저러쿵 하는거 말고 우리들이 우리들을 칭찬해보는 거야. 긍정적 여성성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지.

Safety Zone을 다시 표시하기- 워크샵을 마친후의 자신의 위치는 어디쯤에 있는지 다시 표시하고 마무리한다.

둘. 실무 Training Workshop(by 쎔싸)

1) 실무 Training Workshop이라니...(뭐냔 말이지)

단위에서 여성운동을 하고있는 사람들이 실무에서 겪는 어려움을 같이 풀어보자는 거지...첫째는 Training 준비자들의 경험에서 얻은 노하우를 알려주고 둘째는 이 판에 모인이들이 함께 자기 단위 자체에 존재하거나 그 안에서의 개인적인 고민을 얘기하고 함께 해결점을 모색 해 보는 자리라는게지.

노하우라고 하니까 대단한 비법처럼 들리는군. 어쩌면 다 알고 있는 것들일수도 있는데, 소소하게 어떤 일을 벌일 때, 기획에서 선전, 진행까지에 관한 실무내용과 마인드에 관한 아이디어라고 해야하나. '자, 우리 다음달에 여성연대한판이라는 행사를 하자.'라고 결정한 다음 각자가 해야하는 일들에 관한 것이지. 대충 닥치면 다 하게 되어있기는 하지만, 개인적으로 시작할때마다 약간은 당황하게 되잖아. 그래서 그런 소소한 것들을 정리해보고 함께 이야기 하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가르쳐주도록 하자구.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데에 있어서의 마음가짐이나 서로에 대한 예의에 대한 것들도 이야기해 보았으면 해.

특히, 학교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부딪치게 되는 문제들이 있잖아. 지원금이라던가, 총학생회와의 관계를 푸는 것. 학교 안에서 흘러가는 행사들과 총여나 여성위원회가 하는 행사들의 관계, 부딪침, 학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때의 대처, 학교당국과의 관계등등... 물론 각 학교마다 그리고 매시기마다 다른 상황들이 존재하게 되겠지만, 이런 일들을 어떻게들 풀고 사는지, 가장 파워풀한 전략은 무엇인지 '작전회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또 하나는 '쎔싸'가 여성주의자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은 부분인데 말이지. '게릴라로 살아가는 법'에 대한 것이야. 보통 지금까지 여성주의에 관한 이슈를 제기할 때, 학생회를 통하는 경우가 많잖아. 그러다 보니까 학생회라는 공간에 너무 많은 것들이 집중되어서 과부하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애. 졸업을 했거나 학생이더라도 학생회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사고를 치고 싶을 때' 어떻게 시작해야 하며 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돈과 사람과 장소는 어디에서 구해야 하는지를 매뉴얼로 만들었으면 해. 물론 아직까지는 아주 앙상한 매뉴얼인데, 서로 공유하고 실험하면서 버전업을 시킬 수 있을게야.

2) Workshop Program을 살짝 소개하자면

① 학내활동 효과적으로 하기.

- 사람만들기-내부에 함께 있을 제한된 사람과 외부에 많은 사람 만들기
- 학내 타 단위.행사와 관계맺기
- 계속 잠고있어야 할 일(장기적인 일)과 그 시기에 잠깐 할 일 조율하기
- 학교당국과의 협상
- 효과적인 행사기획과 마인드

: 기획 마인드 - 기획서 쓰기, 체계 만들기, 시테크, 재테크
재테크 - 지원금, 외부 스폰받기, 여타 스폰의 형태들
실행 - 선전, 자료집, 인원동원, 콘티작성
선전 - 사전작업, 홍보(공간내, 언론타기), 사후담론 만들기, 사람남기기

② 게릴라로 살기

- 이슈파이팅 : 담론지형, 실제지형의 결합

• 담론은 언론으로 통신으로 : 보도자료 만들기. Event 만들기
• 실재지형 : 연대할 단위 찾기. 공식요구방법. 법에 대한 이해
• Event 실무 :

③서로서로 도움주기
각자가 서있는 자리에서 가장 어려운 점 이야기하기. 서로의 해법찾기.

2. 몇가지 필요한 것들.

-강의실 2
-자료집
실무팀에서는 세부적인 자료를 남길 생각이다. 워크샵 진행과 홍보에 관련된 자료는 캠프 전체 자료집에 포함된다.
-자활단 따로 필요 없음.
-마이크와 앰프
-자료집 내용과는 별도로 복사물이 더 나갈 예정입니다.
-워크샵 진행도중 필기구 필요, 대자보 필요.

II. 자료집팀 기획안

1. '한판' 인쇄물

1). 기획

- 썰렁한 표지, 권두시 혹은 언(준비되면) 그리고 담페이지의 목차 1, 2, 3P
  →자료집 팀에서 담당합니다.
- 기획의 변(?) + 준비하는 소감(고학번의 글로 그간 여운에 대한, 그리고 이번 캠프를 맞는 감상) 4, 5P
  → 아직 미정.. 정해주세요.
- 전체 일정표(썰렁한 표로...편집역량의 문제) 6P
  → 자료집 팀에서 담당합니다.
- 매일의 일정 소개(1일 1페이지 정도로) 7, 8, 9, 10, 11P
  → 자료집 팀에서 담당합니다.
- 발제문 ?P (넉넉히 40P 분량이면 되겠지)
  → 여성운동대토론회 발제글들(발제자들이 18일 까지 자료집 팀으로 전달)
  워크샵팀 준비팀에서 18일 까지 자료집 팀으로 전달
- 참가단위 들에 대한 간략한 소개 ?Page 분량 (대강 3Page 분량)
  → 참가단위 소개는 연대체 단위들만 받기로 : 연대회의, 먹고살기, 살맛, 들꽃, 돌꽃, 전북지역 연대회의(건)
  자료집팀에서 각 단위에 부탁하여 18일 까지 단위 소개글 받는다.
  단 전북지역 연대회의의 경우는 자료집팀과 참가단관리팀이 같이 연락하여 글 받는다.
- Memo - Memo - Memo - 혹은 토론회 질문지 4Page 분량

그래서 대강 합치면 60Page, 자료집 형태로 나올 것 같다.

2) 일정

- 빠듯하지... 바쁘겠군 *T.T* (한 텀을 차지할 권리가 있어)
- 발간 목표는 일단 담 주 목요일
- 그래서 글마감을 화요일(18일)로 하겠습니다.
  토론회 발제문이나 행사에 대한 간단한(A4 ¼ Page) 안내 등은 각팀내에서 합평까지 해서 홍치의 아디로 띄우세요.
  참가단 소개글은 홍치의 아디로 띄우세요(나우/hungchi)

2. 연대회의 자료집

1) 기획

- 표지, 자료집을 내며, 그리고 목차 1, 2, 3P
- 연대회의 취상과 체계
- 성폭력 개념 부분

- 성폭력 학칙제정의 필요성
- 성폭력 학칙의 원칙
- 성폭력 학칙 내용 부분(연수원생 내용까지)
- 학칙 운동의 방향성
- 설문지 재분석
- 성폭력 사례들(백서 형식이 아닌 의미성 있는 사안을 뽑아서)
  온라인 성폭력(by Apple) + 신정휴 교수 사건 정리(by dalpaengie)
- 편집후기 (아, 피곤하다. 벌써 둥이 터 온다.....*)^o^(*)

합쳐서 40Page 분량 그의 운명은 가장 싸게.. 그래도 묶인 모양이지

2) 일정

- 글의 마감은 오늘까지라고 했지만..
- 자료집 글의 최종 합평은 14일 금요일 1시 이대이고요,
  자료집 설문지 재분석은 15일 토요일 1시 이대입니다.
- 그러니 적어도 금요일까지는 글을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 그리하여 일요일날 열심히 편집을 하면 자료집은 17일 월요일, 늦어도 그 다음날에는 볕을 볼 겁니다.

3. 포스터

4절 크기. 2도 2000부.

4. 예산

- 자료집2종 : 전체 65만원 정도 선에서
- 포스터 : 36만5천원

5. 전체일정은

자료집 일정표 (자료집-연대회의 자료집, 인쇄물- 한판 인쇄물)						
10	11	12	13	14 자료집 마지막 합평	15 자료집 설문지재분석	16 자료집 편집
17 자료집 발간	18 인쇄물 마감, 편집	19	20 인쇄물 발간	21	22	23

입니다

Ⅲ. 참가단 관리팀 진행상황 보고

1.참가단 제안

♥여운단위

-학단위 : 경북대사회대 여학생회, 고대여위, 국민대총여, 동국대여성특위, 동덕여성행동위, 서강 성정치위원회, 관악여모, 시대총여, 날개달기, 성대총여, 수대총여, 아대총여, 연대총여, 영남대총여, 외대총여, 이대여위, 인천대총여, 한양대여위, 한림대 여위, 홍대총여

-연대체단위 : 먹고살기, 연대회의, 살맛, 들꽃, 돌꽃

♡여학운단위

-전여대협 : 제안×(루트 확보 어려움)

-남녀공학총여 : 경희대 총여, 경상대 총여, 금오공대, 중앙대 총여, 서울산업대, 마창여대협, 제주대

(※연락불가능 : 건국대총여학생회, 경기대총여, 광운대, 단국대총여, 숭실대총여, 서울교대, 서울산업대, 세종대총여, 총신대, 카톨릭의대, 한성대총여, 강원대, 동아대총여, 부산대총여)

-여대총학 : 이화, 숙명, 성신, 덕성, 서울, 동덕

2. 참가단 확인 현재 진행중

♠참여단위

♥여운단위

-학단위 : 경북대 사회대 여학생회(3명+α), 국민대 총여(최대 2명), 동국대여성특위(5~10명), 아주대 총여(3~4명), 이대여위(10여명), 한림대여위(3~4명)

-연대체단위 : 먹고살기, 연대회의, 살맛, 들꽃, 돌꽃

♡여학운단위

-남녀공학총여 : 제주대(가능하면 1명)

♤참여불가능단위

♡여학운단위

-남녀공학총여 : 경상대 총여, 중앙대 총여, 마창여대협

-여대총학 : 숙명

♧그밖의 단위들은 연락×

♧참가단 관리팀이 연락하여 행사 진행시켜야 할 단위들 수합해 주십시오.

: 현재로서는 전북지역 연대회의(건)의 23일 오전의 신규여성실업자 관련한 작은 토론회가 있습니다.
행사 관련 장소, 필요 물품, 인원 등은 참가단 관리팀이 전북지영 연대회의와 연락하여 준비합니다.
(자료집의 참가단위 소개나 행사소개등의 글 부탁은 자료집 팀에서 합니다.)

Ⅳ. 예산

1. 각 팀별 예산안 짜오기

1) 성폭력학칙 전체토론회 준비팀
2) 여성운동대토론회 준비팀
3) 문화판 준비팀
4) 첫날 친해지기 마당, 마지막 총화마당 준비팀
5) 워크샵 준비팀
6) 실무팀 : 식사, 선전비용 등
7) 자료집 준비팀 : 자료집, 포스터 비용

2.후원

스폰이 너무 늦어서 거의 불가능 합니다.
현재 유한 킴벌리에서 생리대 현물후원이 가능합니다 .
OB맥주의 30% 할인이 가능할지도..

3. 각 학교 후원금

각 학교 학생처, 총학 후원여부 정해지는 데로 연락해주십시오..

4. 회비(현재 ~~15,000원~~ 20,000으로 측정)

현재 100명 참가 기준으로 하면 1,500,000원의 돈이 들어옴.
회비는 각 캠 주체가 확실하게 걷을 것 : 총무가 구좌를 터서 구좌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회비는 여성연대한판 참가전에 내주십시오. (당일전에 가급적이며..)
외상은 안됩니다. (예산 확보가 안되면 행사진행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5. 행사 예상 지출

1)자료집, 포스터

①연대회의 자료집

: B5. 약 70p. 1000부 찍을 예정.

②여성연대한판 안내책자

: B5. 약 50p. 200부 찍을 예정.

2)식사비

①식사

:학교식당에서 3끼 - 각 1300원

도시락 3끼

②간식, 주류

-간식 : 2번의 전체 토론회에서 간단한 음료와 간식이 나와야 하지않을까..(초코파이와 요구르트 정도라도..)

-주류 : 22일 밤샘문화판에서 쓰일 주류와 기본안주(두부김치가 어떨지..)

*그밖의 간식, 야식은 스스로 해결..

3)예비비

: 100,000원.

4) 숙식비

: 절약을 위해 최대한 자체 해결. 돗자리, 박스, 침낭..

5)행사소요비용

: 각 담당 팀에서 예산안 짜서 보고바람.

6. 분담금

예산 확보를 위해 기획단단위에서 분단금을 걷어야 합니다.

지금으로서는 100,000원을 예상. (200,000원이 되어야 하지만 너무 부담스럽다는 여론으로 우선 100,000원만. 여성연대한판이 적자가 나면 한판 끝난 후 해결방법을 모색해야 겠지요..)

7. 총예산안

8월 16일 회의 때 정확한 예산안이 나올 듯

8. 기타

수익행사 : 담배팔기, 자료집 판매는? 야식 판매?

각 캠별로 영수증 필요한 것은 꼭 빨리 말해주세요..

* 현재 기념T 제작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되면 개인 참가비가 20,000원으로 늘어날 것 같습니다.

V. 실무팀 기획안

1. 자활단 '아울아리'

①'아울아리'란?
-"여성들의 흥겨운 어울림을 만들어가리"라는 의미
-여성연대camp를 완성하기 위한 실무팀으로서 행사 실무를 담당

②'아울아리'가 하는 일은?
-중심 행사판(전체 토론회 및 문화판)관련 행사진행 실무담당
-camp참가인 숙박·식사관련 2박 3일 동안의 공동체 생활 담당
-참가단이 준비한 행사관련 도우미
-선전 관련 실무 담당
-행사동안의 행사기록(사진, 토론회 정리)담당

③'아울아리' 모집대상
-행사를 참여하는 일보다는 직접 행사를 만들어 가고 싶은 이 누구나
주체할 수 없는 끼를 가지고 있어 행사가 있을 때마다 온 몸이 근질근질한 누구나
특히 여성주의가 무엇인지 알고 싶은 누구나
-연대회의 캠 단위 저학번을 중심으로 조직

④일정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0	11	12	13	14 아울아리 제안(각캠)	15	16 아울아리 참가인 확정
17 1차모임	18	19 2차모임	20 점검	21	22	23
				여성연대camp		

-1차모임'만남'
서로를 알아가는 자리
전체판에 대한 간단한 설명
아울아리의 역할에 대한 인지'
선전작업 등 행사준비 시작
-2차모임'진전'

전체판 구성에 대한 확인
역할분담에 대한 확인
선전작업 등 등의 행사관련 준비

2. 선전

①슬로건 및 행사이름 확정

여성운동의 새로운 방향모색과
다양한 흐름의 생성
여성연대한판

②무엇을 중심으로 선전할 것인가?
-성폭력과 여성 관련 주제를 통한 다양한 여성운동 간의 연대 이미지를 강조
-색깔: 파랑+빨강, 노랑, 주황 중 택하여 여성운동 간의 어울림의 이미지로

③주요선전작업
a)동국대 내 내부선전(행사당일)
-일별 행사 알림판 설치(왕자보) -전체 실무팀 담당
-행사장소알림(3장짜리 자보, PC, 화살표) -전체 실무팀 담당
각 중심 행사판 내용 선전(각 팀별 내용에 대한 간단한 선전문구를 받아 선전수행)
:토론회팀2, 문화판팀, workshop팀, 소토론회관을 대상으로 선전
-행사공간 선전(건물입구, 행사장 입구에 행사제목 및 장소 선전)-전체 실무팀
(중심 행사제목 및 식순 행사장 내 선전)-감자
-camp알림 선전(2폭짜리 PC 2종, 포스터) -감자
-실무팀 선전
:식사장소 및 숙박장소 선전
실무팀 연락 및 공간, 역할 선전
-행사기 진행되는 동국대 안의 장소 알림(화장실 등등)

b)외부선전(행사 전까지)
-포스터(총2000부)분배
; 연대회의 참여 학교(서울, 경기지역만 단, 인천대 제외), 그 외 서울여대 산업대, 덕성여대, 전북연대회의 등등
-각 캠별 선전 작업 필요(행사알림을 위한)

④재정 및 지출예상내역
-수입: 10만원
-지출예상내역(15일 1차구입목록)

PC천
색지 및 자보용지
비닐
포스터 칼라, 에나멜 페인트, 붓,
청테잎, 유리테잎
기타 선전 물품

⑤일정
-16일까지 포스터 각 캠별로 배분
-17일부터 동국대 내부 선전 작업 시작(camp선전부터)
선전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아울아리와 함께)
-20일까지 완성, 21일 부착

3. 자보전 및 booth 설치

①자보전과 booth의 내용
a)자보전
-참가단위 소개
-행사 관련 내용(참가단준비 행사, 중심 행사 관련 내용) 소개; 행사 취지 및 목적을 쉽게 알려내는 일)
-주제별 내용(참가단위가 중심으로 다룬 주제 관련 내용)
b)부스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스
;자료집, 기념품 등등 판매
-단위알림을 목적으로 하는 부스
;자료집 배포나 소규모 행사 진행

②일정
-17일까지 자보전과 부스를 설치할 단위 확정(먹살, 살맛, 전북 연대회의는 확정) 및 확인
-19~20일까지 장소 배치 확정, 알림
-21일까지 설치

4. 숙식

①잠자리 배치
; 박스와 이불20여개 준비, 나머지 침낭 등은 참가자 각자 알아서 준비

-17일까지 참가인 수 확인
-19~20일 까지 확정
-21일까지 자보로 공고

②식사(참가비포함)
-금~토 오후까지(총 3끼): 식권
토~일 오후까지(총 3끼): 도시락
-식권 배분은 식사전 행사 후 각 조별로 분배, 분배장소는 별도 통보
식사시간과 장소, 식권 배분 장소는 자보로 별도 공고

5. 기념품

①참가단 기념품: 전체 참가단T 제작(참가비 포함)
문양과 가격 결정은 16일 2차 기획단 회의에서
②'아울아리' 표시: 목에 거는 멋있는 명찰

6. 참가비 결정

①참가비 내용
-식사비
-자료집
-기념품
②참가비: 20,000원정도
→총무와 논의 후 기획단회의에서 결정

7. 전체 행사 진행도중 필요물품

-비상약품(해열제, 소화제, 진통제, 반창고 등등)
-모기향, 물파스
-술자리시 준비물품

그밖에

1) 자보전

: 행사 기간 내내 가능

i)자보전 내용

-참가단위 소개

: 참가하는 각 단위에서 단위소개 자보 써오거나, 단위소개 문안 기획단으로 전달하여 단위 소개 자보가 나간다.

-행사 관련 내용

: 여성연대 한 판 행사 관련 내용 소개, 참가단 준비 행사
행사 취지 및 목적을 쉽게 알려내는 일

-주제별 내용

: 참가단위가 중심으로 다룬 주제 관련 내용

ii) 일정

-현재 먹살, 살맛, 전북 연대회의, 서울, 경기지역 연대회의, 시립대 확정

-17일까지 자보전 설치할 단위 확정 및 확인

-19~20일까지 장소 배치 확정, 알림

-21일까지 설치

2) Booth 설치

: 행사 기간 내내 가능

i) Booth 내용

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스

: 자료집, 기념품 등등 판매

② 단위알림을 목적으로 하는 부스

: 자료집 배포나 소규모 행사 진행

③ 기지촌 여성을 위한 부스

: 수해에 피해를 당한 기지촌 언니들을 위한 모금 활동과 의류, 침구류를 받는다.
각 단위에서 가능한 물품들을 모아서 함께 전달.

ii) 일정

-17일까지 부스를 설치할 단위 확정 및 확인

-19~20일까지 장소 배치 확정, 알림

-21일까지 설치